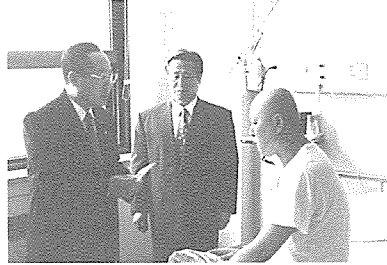


건협, 동료의 아픔을 함께 나누다

골수암 투병 지창조 대리, 화재 당한 강신일 주임에 성금 전달



사람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직원들은, 골수암으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지창조 대리에게 동료의 마음을 담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골수암으로 투병 중인 충북 지부 지창조 대리와, 최근 화재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부산지부 강신일 주임을 위해 성의껏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재화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성정웅 사무총장과 박철동 김 사실장, 최익현 기획예산국장 등은 지난 7월 23일과 7월 25일, 두

번 편지를 전달하기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신일 주임(사진①)과 지창조 대리(사진②)에게 성정웅 사무총장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략이 아늑다운 것은 그 속에 푸르는 꽃을 담고 있는 새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무게가 다르듯 저마다 삶의 무게도 다르겠지요.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던 아늑다운 당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시련 앞에 의연히 대처하여 승리할 당신임을 굳게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잊지 마세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건협 가족'이 늘 당신 곁에 있었음…….

작지않, 희상님, 총장님 이하 570명 전 사우(社友)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보냅니다. 비운 뒤 땅이 굳듯 시련 뒤에 분명 밝고 희망찬 내일이 있을 것임을 믿으며, 래유를 기원합니다.〉

직원약동

강원지부, 도 의회의원 대상 건강강좌

윤방부 교수 초청, 사무처 직원·가족 등도 참석



강원지부가 지난 8월 21일, 강원도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강원도 설악수련원에서 있었던 이 공개강좌는 연세대의 가정의학과 윤방부 교수를 초청해 1)스트레스와 건강, 2)순환기계 질병 예방과 관리, 3)건강검진의 중요성, 4)도민을 위한 바람직한 건강정책 등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이날 공개강좌에는 도의회의원외에도 사무처 직원, 기자 및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해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대전·충남지부, 건협 알리기 운동 전개

대전·충남지부는 내원자 활성화와 올바른 건협 이미지 홍보, 올바른 건강관련 정보 전달을 위해 전 직원이 '건협 알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직원 1명이 하루 2명씩 연간 2만 5천여명의 시도민을 대상으로 건협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보건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권경석 경남부지사, 경남지부 방문



권경석 경남 부지사가 지난 7월 2일, 경남지부를 방문했다. 경

남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권부지사는 이날, 김연수 사무국장으로부터 경남지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부 검진시설 등을 돌아보고 도민 건강증진에 노고가 큰 지부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지부 김은경 원장, 의보공단서 감사패 받아



서울지부 김은경 강서의원장이 지난 8월 11일,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감사패는 공단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건협의료보험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음으로써 수여된 것이다.

전북지부, 중고생 대상 순회 금연 교육



전북지부가 도내 중·고등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청소년 흡연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와 각종 질병의 발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조기교육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의 필요성을 자각시킴으로써 모든 학생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순회 금연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 의뢰한 것이다.

'96년에 22개교 1만2천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전라북도는, 올해도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49개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경북지부, 모자가정 자립학교 무료검진 등 실시

경북지부는, 지난 7월 22일과 29일, '97. 모자가정 자립학교에 참석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공개강좌와 무료 건강검

진을 실시했다.

모자가정 자립학교는 경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여성이 가장으로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간의 집단합숙 훈련을 실시해 자립의지를 더욱 높이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 '89년부터 매년 7월에 도내 저소득 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북 자연학습원(구미시 금오산 소재)에서 있었던 올해의 모자가정 자립학교에는 도내 시·군에서 추천된 모범 어머니와 자녀 등 150가구 300명이 참석해, 정신교육과 부대 행사를 통해, 일상 생활 여건 속에서 가져보지 못한 시간을 가정으로써 올바른 생활 자세와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홍광선 인천지부 사무국장, 경기일보 백일장서 당선

인천지부 홍광선 사무국장은 지난 8월, 제 1회 경기일보 지상 백일장에서 "어느 여름날"이라는 시로 시부문 가작에 당선되었다.

평소 시작(詩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홍국장의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푸른 내음 골질 텃밭 / 참외, 수박 익어가는 소리 / 꿀 지게진 동네 총각 / 마음마다 설레고 / 언덕배기 외톨진 잡초발엔 / 송아지 한 마리 / 미루나뭇가지 이고 잠들었다. / 일그러진 원두막에 누워 / 구름 따라가는 / 농부의 긴 한숨소리 / 올해는 여위려나 / 서른 여문 둘째 아이〉